

# SUNBO NEWS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 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주요소식

## 2015년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수정사업계획 발표회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25일 영도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 강당에서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상반기 실적보고 및 하반기 수정사업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는 모든 성과 지표에 대해 분석하고 재점검하여 발 빠른 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기별로 시행되고 있다.

발표회에 앞서 김창욱 상무의 리더십 강의가 있었다. 이후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 'PLUS2020'에 대한 취지와 이를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신 성장동력에 대해 설명했다. 본격적인 발표회는 각 공장(다대1공장·2공장·3공장/구평공장/영도공장/영암공장/군산공장)의 부문별 사업실적 및 생존 전략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원가절감, 생산능률, 자재관리, A/S비용 등 성과지표에 따른 생존전략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오후에는 지원부서인 조선 영업부, 플랜트 영업부, 조선 설계팀, 플랜트 설계팀, 자재조달부, 품질경영부, 경영지원부, 개발팀, 사업기획팀(전산팀, 플랜트 품질팀, 개발2팀)이 차례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각 팀의 발표 후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조선영업은 매출, 수주액이 달성되는 것을 목표로,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더욱 뛰어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특히 플랜트 영업은 매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자." 이 외에도 각 공장, 조선 설계, 플랜트 설계, 자재조달, 경영지원, HSE 등 부서마다 코멘트를 붙이며 격려했다. 이에 직원들은 애로사항은 대표이사와 함께 의논하고, 잘된 부서의 벤치마킹을 통해 부족한 점은 더욱 개선시키고, 잘된 점은 타 부서에 전파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상반기 발표회에서는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원가절감 목표 합의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 별로 원가절감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예상금액과 전사목표 대비 비율을 선정하여 팀 대표들의 원가절감 목표합의서에 서명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서로의 약속을 증명했다.

발표회를 마치며 최금식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비전 PLUS2020'을 추진하는 가운데 모든 직원들의 철저한 안전의식, 자기계발 및 건강관리가 있어야 한다. 다 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하자라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당부하였다.

## 최금식 대표이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참석

최금식 대표이사는 지난 7월 15일에 열린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조경제타운의 일환으로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울산 외에도 세종, 인천, 대전 등에도 자리잡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권오갑 사장,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대우조선해양 조옥성 부사장, 이태성 경제부시장, 황우여 사회부총리, 윤상직 산업부장관, 유기준 해수부장관 등이 참석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논의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중소·벤처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현장을 밀착 지원에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우리 회사 산업자원부로부터 생산성 경영시스템 인증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번보다 한 등급 향상된 Level5 등급의 「생산성경영체계(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받았다. 「생산성경영체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리더십 △고객관리 △경영성과 등 총 7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현재 경영체계 수준을 평가해 생산성 향상을 확보한 기업·기관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해 수여하는 제도이다. 기업의 생산성 성과와 경영시스템의 수준을 조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역량 성숙도 기준(Capability Maturity Model)으로 평가한다. 이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시스템 수준과 생산성의 혁신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향후 경영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혁신목표를 설정하고 보다 강력한 경영혁신 전개, 전략과제 재점검, 경영지표와 연계되는 선행지표항목 설정, 연구개발 등을 재정비하여 앞으로도 계속 높은 PMS 등급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소식

# 진급자 33인, 슈퍼 선보인으로 거듭나다!

지난 7월에 11일,  
우리 회사는 진급자를 대상으로  
'진급자들의 힐링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2015 슈퍼 선보인 프로그램'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5년 진급자 33명이 참가한 '슈퍼 선보인 프로그램'이 7월 10일(금)부터 1박2일 동안 통영 금호리조트에서 실시되었다. 슈퍼 선보인 프로그램은 PSA 선보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년 진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 승진자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재인식하고 팀의 높은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슈퍼 선보인 프로그램에서는 딱딱한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진급자들의 자격소양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1일차 첫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치유'라는 힐링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 증진을 이끌어내는 '힐링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한국미래인재교육연구원 이사인 박은경 강사가 주도한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는 진급자로서의 자세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었다.

오후에는 KBS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 동네 예체능'을 응용한 '선보 예체능'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진급자들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인 탁구, 족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포츠로 인해 팀원들의 단합, 팀 간의 스포츠맨십을 느끼는 활기찬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후 이어진 프로그램은 'PLUS2020'을 주제로 한 김청옥 상무이사 강의가 있었다. 우리 회사는 지난 6월 전사적으로 'PLUS2020 미래창조 선언식'을 개최하고, 선보의 미래를 위해 재도약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진급자들과 회사의 비전을 함께 다시 한 번 공유하기 위해 김청옥 상무이사는 "회사의 내실을 다짐과 동시에 혁신을 주도하자. 또한 진급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회사의 비전 달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녁식사 후에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진급자들은 어쿠스틱 밴드 '포크스토리'의 연

주에 맞춰 추억의 노래들을 함께 부르기도 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진급자들은 "밴드 공연과 함께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라며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끝으로 1일차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차 아침에는 '요트타고 바다로, 세계로'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요트를 타고 광활한 바다에 직접 나가 봄으로써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인 조선해양플랜트에 대한 각오와 도전정신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드넓은 바다의 현장에서 진급자들은 선보의 조선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함께 'PLUS 2020'을 상기하고 우리 회사의 재도약을 이루는데 일조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회사소식

# PLUS2020 미래창조 선보 Family 협력사 간담회 실시

경영혁신 PLUS2020 비전을  
협력사들과 공유하고 조선업계 동향을  
설명하기 위해 협력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14일 김해 부원동에 위치한 '아이스케이 호텔'에서 PLUS2020 미래창조 선보 Family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비전 경영혁신 PLUS2020을 협력사들과 공유하고 조선업계, 영업동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협력사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상생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자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경산업, 아성산업, 유창산업, 인화공업, 티와이 테크 등 총 40여 개의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참석했으며, 우리 회사에서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상식 부사장, 서재욱 상무, 이동준 부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최정찬 차장의 조선/해양 시장 발표로 시작되었다. 조선/해양 시장을 함께 공유하여 업계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 회사와 협력사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도 세계 경

제와 국내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 궤도로 돌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업계는 가장 느린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PLUS 2020 미래창조'라는 새로운 우리 회사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외부적인 악조건을 극복해내고 고객이 영원을 창출해낼 수 있는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보 Family 윤리강령'을 우리 회사 직원과 모든 협력사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우리 회사의 성장에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요소로 매김해 왔다. 윤리강령에는 '협력사와 우리 회사는 동등한 위치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부당한 이익은 제공하지도 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회사 직원은 물론 모든 협력사 대표가 한 목소리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는 그동안 협력사와 함께 더

어 동반성장하기 위해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력을 지향해왔습니다. 또한 자유 경쟁시장의 질서를 존중,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해오고 있으며 협력사와 함께 계속 상호 보완적 발전 관계로 지내길 바랍니다. 비록 계속되는 조선/해양 업계 불황으로 긴축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PLUS2020'을 성공시킬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내실을 충분히 다졌습니다. 우리만 성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한 일입니다."라며 우리 회사의 PLUS2020의 성공을 협력사들의 역할과 관계에 대해 서로 함께 성장도모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조선업계 동향파악은 물론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간담회 소감을 남겼다. 협력사 간담회는 협력사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CEO Message

# 최금식 대표이사가 전하는 따뜻하고 소중한 메시지

### 내 등에 짐

-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 내 등의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게 됩니다.
-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 가족의 짐, 사업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바랍니다.

### 삶에서 참 값진 3초

-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단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 내 차 앞으로 다급히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서행으로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더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가 뒤돌아 봤을 때 허전하지 않도록...
-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 없는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화는 지나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 차량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 쳤을 때 3초만 손을 흔들어서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다른 아이에게도 그리 할 것이다.
- 죄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을 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엔 넉넉한 미소로 한잔 술을 부어 줄지 어찌 아는가?

때에 맞는 말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항상 출퇴근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건강정보

# 어깨운동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활기차게

최근에는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목 통증과 더불어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깨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깨의 과사용, 외상 등 자체적인 문제이거나 상체의 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충분한 준비운동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어깨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한 굽어진 어깨는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과긴장 및 부조화를 유발합니다.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스트레칭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 좋은강안병원 재활치료팀 물리치료사 이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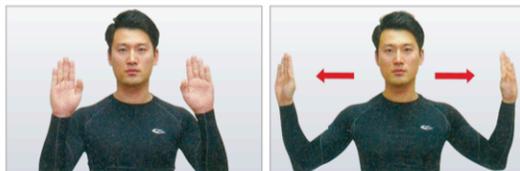
\* 사진 출처: 좋은병원들

### 어깨 거상 운동



• 양쪽 어깨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 견갑 모음 운동



• 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도록 한다.  
• 양팔을 옆으로 벌려서 견갑부가 중앙으로 모이도록 한다.

### 후방 관절막 이완 운동



• 정상인 팔로 아픈 팔꿈치를 잡고 안쪽으로 서서히 당긴다. 이때 아픈 팔은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실시한다.

### 수면자세 신장 운동



• 딱딱한 바닥에서 아픈 쪽 어깨가 아래로 향하게 옆으로 눕는다. 아픈 쪽 팔을 뻗어 베개 선까지 올려주고 팔꿈치를 직각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정상인 손으로 아픈 쪽 손목을 아래로 내린다.

H.S.E

# 각 공장 별 안전 결의대회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안전 행사 및 안전 결의대회를 공장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9일 다대1공장, 10일 다대 2,3공장, 13일 구평공장, 14일 영도공장). 이번 안전 결의대회는 현장의 안전상태와 작업자 개개인의 마음가짐을 한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여 예방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금식 대표이사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메르스로부터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로 10대 안전수칙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구성원 각자가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해 나가야 함을 강론했다. 이번 안전 결의대회는 HSE홍장을 대표이사가 직접 가슴에 달아주며 각 개인의 책임감을 고취시켰는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홍장은 각 공장장에게, 안전보건환경책임자 홍장은 임원들과 외주업체 대표들에게, 생산안전관리감독자 홍장은 과장급에게 주어졌다.



# 2015년 CPR(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각 공장 사업장에서 순차적으로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의 사하소방서, 향만소방서와 한국기업전문교육원의 교육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일상 혹은 현장작업 중 갑작스러운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CPR의 중요도가 무엇보다 높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미리 알아두고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culture



## 더위를 날려줄 영도공장의 시원하고 따스한 소식

매일 데이트하듯 출근한다는  
영도공장의 핫한 커플  
조원우 직장, 양현미 사원의 이야기와  
영도공장의 쿨타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회사 영도공장에는 무더위를 화끈하게 날려주는 사내커플이 있다. 바로 조원우(남) 직장관과 양현미(여) 사원이다. 이 두 사람은 20년차가 되는 부부로 지난 2014년 9월 10일 동시에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다.

입사 전 양현미 사원은 어린이집 교사로 있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편을 믿었기에 우리 회사 입사를 결심했어요.”라며 남편 조원우 직장의 우리 회사에 대한 신념이 양현미 사원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조원우 직장 역시 부인과 한 회사에 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소감을 말하였다. “같은 일을 하다 보니 함께 대화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라며 부인이 직장에 있어서 행

복하다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양현미 사원 역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남편의 모습에 언제나 든든해요.” 하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모습에 본인 역시 긍정적인 자극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 두 부부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매일 손을 꼭 잡고 출근할 정도로 영도공장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사내 부부로 많은 시샘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부부의 소식만큼 무더위를 날려줄 영도 공장의 소식이 있다. 영도공장은 실외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우리 회사와 협력사가 함께 마련한 회비로 매일 오후 3시 수박화채, 아이스크림 등을 준비하여 직원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 선남 선녀들의 특별하고 달콤했던 만남 홍티아트센터에서 ‘케이크 만들기’ 행사 실시

우리 회사는 지난 7월 29일 수요일 저녁 6시, 홍티아트센터에서 미혼인 선남선녀 40여 명이 모여 함께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마련했다.

우리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자직원들의 수가 많고 여자 직원들은 그에 비해 현격히 수가 적은 편이라 외부에서 초청받은 미혼의 여성들과 우리 회사 남자직원 20여 명 총 40명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직접 파트너를 선택, 케이크 재료들을 찾는 보물찾기를 통해 먼저 한 팀으로서 상호적 유대감을 만들었다.

그 후 팀별로 획득한 재료로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케이크를 만들었으며 초청된 심사위원이 1등 커플에게는 시상과 함께 다음 데이트를 위한 영화티켓을 증정했다.

7월 문화 행사를 비롯해 우리 회사 문화행사는 그동안 일하기 좋은 직장의 모습과 직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에서 우리 회사는 행사 비용전액을 부담했고, 홍티아트센터의 감윤경 작가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만들어진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로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생일 축하합니다

- ☑ **다대공장** 강명규 (08.03) 김휘진 (08.13)  
이영근 (08.13) 김광수 (08.15)  
양덕규 (08.19) 이형백 (08.20)  
최두영 (08.20) 권성현 (08.21)  
박찬수 (08.27) 김천기 (08.29)  
김영자 (08.25) 장세렬 (08.25)  
박경규 (08.02) 유우성 (08.11)  
최영찬 (08.13) 정호경 (08.15)  
박귀남 (08.16) 이태훈 (08.16)
- ☑ **구평공장** 정정배 (08.06) 조영화 (08.06)  
이흥주 (08.07) 정준영 (08.14)  
이동준 (08.17) 조상연 (08.17)  
이연호 (08.23) 정태교 (08.25)  
신현봉 (08.25) 황길성 (08.27)  
양승현 (08.28) 오경준 (08.28)  
전동혁 (08.31) 이창복 (08.23)  
권오용 (08.07) 김광욱 (08.10)  
하보선 (08.11) 김동관 (08.11)  
강보영 (08.16)
- ☑ **영암공장** 김정인 (08.05) 서종민 (08.13)  
상 크 (08.29) 오세준 (08.25)
- ☑ **군산공장** 최일남 (08.14) 김건우 (08.02)  
이병규 (08.02) 김민철 (08.07)



### 입사 기념일

- ☑ **다대공장** 노재태 (08.02) 고상현 (08.06)  
김정민 (08.07) 이우석 (08.08)  
김천기 (08.11) 이옥렬 (08.13)  
최경호 (08.13) 양윤모 (08.18)
- ☑ **구평공장** 김영호 (08.24)
- ☑ **영도공장** 이영근 (08.10)
- ☑ **영암공장** 노성담 (08.01) 김대영 (08.04)